# 중소기업 대안금융으로서의 P2P금융의 변화

□ P2P금융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힘입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면서 빠르게 성장

□ LendingClub, Funding Circle 등의 해외 주요 P2P 대출업체의 경우 전통적 은행,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와의 파트너쉽 확대 및 P2P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

□ P2P금융은 최근 들어 사기대출, 지급불능, 횡령 등이 난무함에 따라 신뢰도 하락, 유동성 부족 등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며 P2P금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P2P(Peer-to-Peer)금융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힘입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면서 빠르게 성장**

— P2P금융은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은행 등의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며,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플랫폼,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대출투자(marketplace lending)로 불림[1)]

— ICT 기술의 발전과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P2P금융 등의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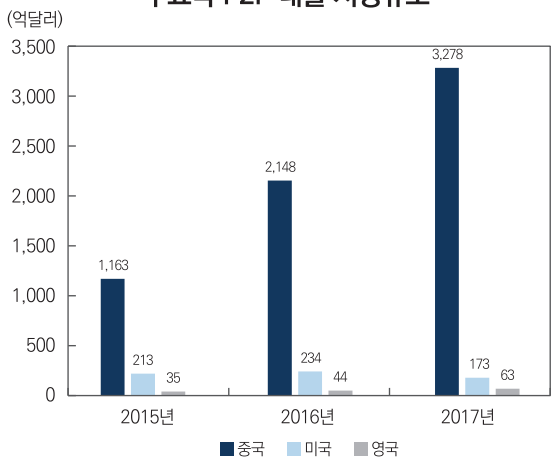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대출 확보를 위한 정보 부족, 높은 리스크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로 은행들의 자금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경로의 다각화 필요성이 대두
- P2P와 같은 플랫폼 금융은 은행 대비 투자자와 차입자의 접근 용이, 절차 간편, 자금조달 신속 등의 이점으로 중소기업 대안금융 수단으로 부상
- OECD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 대안금융[2)] 규모는 2013년 이후로 2016년까지 매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P2P금융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영국에서 중소기업 대안금융으로서 P2P금융의 역할이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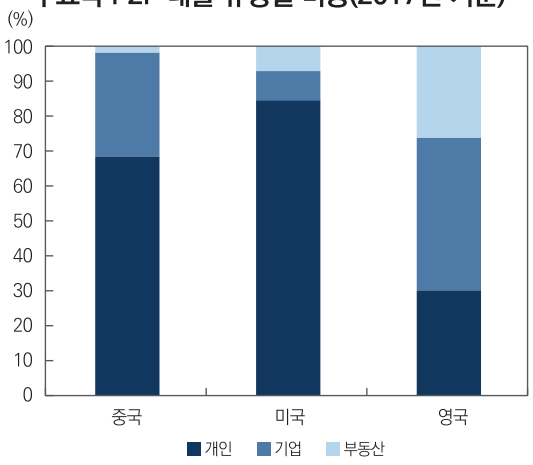
1) 이성복, 2018.1, P2P 대출중개시장 분석과 시사점 - 금융중개 역할을 중심으로 - ,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8-02
2) 온라인 대안금융은 중간 플랫폼을 통해 P2P 대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매출채권 거래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 2017년 기준 P2P 대출규모는 중국, 미국, 영국 순으로 많은 가운데 중국이 3,278억달러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과 영국의 P2P 대출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53%, 44% 확대된 반면 미국은 26% 축소[3)]
- P2P 기업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은 각각 30%, 8%를 차지
-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P2P 대출규모는 9억달러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성이 높으나 절대적인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며, P2P를 통한 부동산대출이 가장 큰 비중인 62%를 차지하고 기업대출은 18%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국 P2P 대출 시장규모**




**주요국 P2P 대출 유형별 비중(2017년 기준)**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 **LendingClub, Funding Circle 등의 해외 주요 P2P 대출업체의 경우 전통적 은행,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과의 파트너쉽 확대 및 P2P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

— 2006년에 설립된 미국의 최대 P2P 플랫폼인 LendingClub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P2P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2014년 3월부터 기업대출을 시작했으며 2016년말 기준 누적 5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실행

- LendingClub은 2014년부터 은행과의 파트너쉽을 시작하여 LendingClub을 통해 대출을 연결하거나 lendingClub의 대출상품을 은행 고객에게 판매
- LendingClub의 투자자 구성을 살펴보면 은행, 자산관리계좌 및 기타 기관투자자 비중은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4/4분기 기준)

3)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P2P 모델과 온라인 직접대출모델을 함께 운영, 2017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접대출 규모는 219억달러에 달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P2P 플랫폼은 영국의 Funding Circle로 정책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로부터 P2P 자금을 빌려 5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50억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대출

- 영국의 중소기업 대출 전문 P2P 플랫폼인 Funding Circle은 2010년에 설립되어 2018년 9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영국 외에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플랫폼을 운영
- 과거 개인투자자 중심에서 은행, 자산관리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로 투자자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투자자로 구성
- P2P 대출 플랫폼과 정부지원 은행간의 파트너쉽을 확대하여 2013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인 British Business Bank(BBB)는 Funding Circle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게 1억 6,500만파운드를 대출하여 영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재정 확보를 지원하고 유럽투자은행(EIB)도 2016년 1억파운드까지 소상공인 대출자금 투자를 약정
- 2017년에는 글로벌 보험회사인 Aegon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4년 동안 Funding Circle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약속하였으며, 첫해 1억 6,000만파운드 이상을 투자

**LendingClub과 Funding Circle 비교**

| | LendingClub | Funding Circle |
|---|---|---|
| 설립연도 | 2006년 | 2010년 |
| 상장일/거래소 | 2014년 12월 뉴욕증권거래소 | 2018년 9월 런던증권거래소 |
| 차입자 | 개인, 기업 | 기업 |
| 중소기업 대출요건 | 12개월 이상 영업, 연매출 5만달러 이상, 최근 도산이나 재산 차압 없을 것, 사업의 20% 소유하고 신용도 양호 | 설립 2년 이상, 재무보고서 제공, 신용점수 500점 이상 |
| 투자자 구성 | 은행 41%, 자산관리계좌(Managed Accounts) 19%, 기타 기관투자자 18%, LendingClub 16%, 개인 6%[3] | 기관투자자 51%, 개인 31%, Funding Circle SME Income Fund(FICF) 13% 정책자금 5%[2] |
| 중소기업 누적 대출규모 | 50억달러[1] | 50억파운드[2] |

주 : 1) 2016년말 기준
2) 2018년 3/4분기 기준
3) 2018년말 기준
자료: 각사 홈페이지

**□ P2P금융은 최근 들어 사기대출, 지급불능, 횡령 등이 난무함에 따라 신뢰도 하락, 유동성 부족 등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며 P2P금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P2P금융은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혁신수단으로서 투자자와 차입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단기간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빠른 성장에 따른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미흡, 새로운 그림자금융 확대 우려로 최근 들어 신뢰도가 크게 하락

— Deloitte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 대출(P2P금융)은 마켓플레이스 대출과 은행의 융합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산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핀테크 퍼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4)]

- 중소기업, 학생,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택 모기지 및 자동차 대출과 같은 기타 자산도 점진적으로 P2P금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온라인 비은행, 기타 핀테크 업체, 전통적 기술기업, 소매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들어 P2P 대출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조달 다변화 및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P2P금융을 위해 각 국의 규제사례를 통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서 P2P금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5)]

— 한편, P2P금융 시장규모가 전체 대출중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지만, 은행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P2P금융 시장 참여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림자금융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6)]

선임연구원 김은화

4) Deloitte, 2017, Marketplace lending 2.0.

5) Naoko Nemoto, David Storey and Bihong Huang, 2019, Optimal Regulation of P2P Lend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DBI Working Paper Series.

6) 이성복, 2018.1, P2P 대출중개시장 분석과 시사점 - 금융중개 역할을 중심으로 - ,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8-02.